



중창춘 동계아시아게임 개막

한국, 사상 첫 국제대회 종합 1위

동계U대회 금 10, 은 11, 동 9 강호 러시아 제치고 '세계 정상'



한국이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사상 초유의 성적인 종합 1위의 위업을 달성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은 대회 마지막날인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남녀부 결승에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 획득에 실패했는데도 금메달 10, 은메달 11, 동메달 9개로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를 통틀어 국제대회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까지 금 9, 은 13, 동메달 11개로 한국을 바짝 뒤쫓았던 동계 스포츠 강국 러시아는 마지막날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1위 탈환을 노렸지만 캐나다에 1-3으로 지면서 은메달에 그쳐 2위에 머물렀다.

개최국 이탈리아는 금 9, 은 2, 동메달 6개로 3위였다.

한국은 지난 20일 이강석(한국체대)이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힘차게 출발한 데 이어 21일 이상화가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두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스피드스케이팅은 금메달 2개 이외에도 은메달 4개와 동메달 5개도 함께 목에 걸었다.

한국의 메달 받은 역시 쇼트트랙이었다. 한국은 '효자종목' 쇼트트랙에서 전종목 석권에는 실패했지만 전체 금메달 10개 가운데 실적으로 아쉽게 우승을 놓친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를 제외하고 8개를 휩쓸며 종합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전체 메달 30개 가운데 63%인 17개(금 8, 은 5, 동 4)를 차지한 것. 이번 대회에 나선 대표팀은 1진들이 중국 창춘(長春) 동계아시아게임에 출전한 가운데 2진급 선수로 구성됐지만, 1진-2진 기량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과 한국 쇼트트랙이 세계에서 이미 한참 높은 수준으로 정상에 올라 있다는 점을 성적으로 증명했다.

특히 성시백(연세대)은 500m와 1,000m, 1,500m, 3,000m 등 개인전 4개와 5,000m 계주까지 5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해냈다.

여자부에서는 김혜경(성남시청·성신여대 졸업예정)이 500m와 1,500m에서 우승하며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52개 국가에서 1천906명의 선수가 참여해 11일에 걸친 젊음의 열전을 펼친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20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재회를 기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타조리 빙상장에서 열린 2007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폐막행사에서 한국을 비롯 참가국의 국기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10, 은11, 동 9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오늘 '금 사냥'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아게임이 28일 개막돼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선수단의 본격적인 메달레이스가 시작됐다. 한국 선수단 최고의 '금메달 텃밭' 쇼트트랙은 29일(한국시간) 오후 7시30분 창춘 우후안 체육관에서 열리는 남녀 1,500m에서 대회 첫 금메달을 노린다.

저녁 7시30분 남녀 1,500m '스타트'

심판 5명 중 3명이 중국 출신 '새 복병'

남녀 1,500m는 지난해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안현수(한국체대)와 진선유(단국대 입학예정·광문고)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다.

여자 1,500m에는 진선유와 변천사(한국체대), 정은주(한국체대 입학예정·서현고) 등 3명의 선수들이 나선다.

진선유는 설명이 필요없는 여자 대표팀의 최고 에이스. 지난해 9월 대표팀 선발전에서 여자부 1위로 태극마크를 유지했던 진선유는 발목 통증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정상 기량을 회복해 유력한 다관왕 후보로 손꼽힌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계주 금메달리스트 변천사는 1,500m에서 후배인 진선유와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을 보여주었고,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 게임에 나선 정은주 역시 타고난 체력을 앞세운 '파워 레이스'로 메달 사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금메달 경쟁에 나서는 중국은 팀의 주축인 왕멍을 비롯해 청샤오레이, 주양 등 3명이 나서지만 1,500m에서는 한국에 밀린다는 평가다. 하지만 쇼트트랙은 워낙 변수가 많은 경기라서 방심은 금물이다.

쇼트트랙 심판은 모두 5명인데 한국의 편해감 심판과 일본의 이와시마 나옴이 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중국인이다.

이번 대회에 중국의 홈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데다 쇼트트랙의 경우 심판 판정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 심판의 대거 투입은 한국 대표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자 1,500m에는 세계 최고 기량의 안현수와 '2인자' 이호석(경희대), 송경택(강릉시청)이 메달 '싸움'에 도전한다.

안현수는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에서도 1,500m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어 대회 2연패 역시 관심거리다.

우여곡절 끝에 1,500m 경기에 나선 이호석은 지난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1,500m에서 안현수에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내줘 이번 대회를 '명예회복'의 기회를 삼겠다는 각오다. 송경택 역시 지난해 12월 쇼트트랙월드컵 4차 대회 1,500m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평창 세계스키대회 개막



28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막된 세계 스키인의 축제 '2007평창인터스키대회'에서 참가국 선수들이 화려한 활강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또 '골대 불운'...설기현 선제골 도움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폴란드와 맞붙은 경기에서 골키퍼 데이비드 제임스와 1대1로 맞섰다. 골지역 왼쪽에서 최후의 왼발 슈트를 꿰었지만 불운의 제임스의 몸에 스친 뒤 왼쪽 골 포스트를 맞고 아웃됐다. 골대 불운에 운 박지성은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로부터 평점 6점을 받았다.

한편 설기현(28·레딩FC)은 28일 오전 세인트 앤드루스파크에서 열린 2006-2007 FA컵 4라운드 버밍엄 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로 데이브 키슨의 선제골을 도왔다.

레딩은 챔피언십(2부리그) 버밍엄을 3-2로 꺾고 1998년 이후 9년만에 FA컵 16강에 진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를 바꿔 왼쪽으로 파고든 박지성은 포츠머스 수비수 글렌 존슨을 제치고 골키퍼 데이비드 제임스와 1대1로 맞섰다. 골지역 왼쪽에서 최후의 왼발 슈트를 꿰었지만 불운의 제임스의 몸에 스친 뒤 왼쪽 골 포스트를 맞고 아웃됐다. 골대 불운에 운 박지성은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로부터 평점 6점을 받았다.

한편 설기현(28·레딩FC)은 28일 오전 세인트 앤드루스파크에서 열린 2006-2007 FA컵 4라운드 버밍엄 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로 데이브 키슨의 선제골을 도왔다.

레딩은 챔피언십(2부리그) 버밍엄을 3-2로 꺾고 1998년 이후 9년만에 FA컵 16강에 진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걸프컵 결승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축구대회 본선 조별리그 D조 한국의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이 2007 걸프컵 준결승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UAE)과 오만에 나란히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중동 축구의 맹주 사우디는 28일(이하 한국시간) UAE 두바이에서 열린 준결승 홈팀 UAE와 대결에서 후반 종료 직전 이스마일 마타르에게 결승골을 내줘 0-1로 졌다. 독일 출신 한스 페터 브리겔 감독을 대회 도중 경질하며 천신만고 끝에 준결승에 오른 바레인도 오만에 0-1로 패했다.

UAE와 오만은 오는 31일 결승에서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랑스 축구 영웅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에 선출

프랑스의 축구 영웅 미셸 플라티니(52)가 레나르트 요한손(78·스웨덴)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선출됐다.

플라티니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31차 UEFA 총회에서 52개 회원국 투표로 치러진 신임 회장 선거 결과 27표를 획득, 23표를 얻은 현 회장 요한손을 제치고 4년 임기의 차기 유럽 축구 수장으로 뽑혔다. 2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로써 플라티니는 1990년부터 17년 간 권좌를 지켜온 요한손을 끌어내리고 유럽 축구의 새 시대를 열 중책을 떠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8언더파 공동 8위

PGA 뷰익인비테이션셔널 3R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의 샷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션셔널 3라운드에서는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우승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위창수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라호야의 토리파인스 골프장 남코스(파72·7천607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경기에서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범하는 바람에 1오버파 73타를 쳤다.

전날까지 공동 3위에 올랐던 위창수는 이로써 중간 합계 8언더파 208타를 스코어가

드에 적어내면서 마크 캠퍼베키아(미국) 등 6명과 함께 공동 8위로 처졌다.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인 앤드루 버클(호주)이 11언더파 205타로 브랜트 스니데커(미국)와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케빈 서덜랜드(미국)가 10언더파로 3위, 대회 3연패이자 PGA 투어 7연승을 노리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9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위창수도 비록 아이언 샷의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퍼트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어 선두와 3타차를 마지막 4라운드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